

월요논단



양영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갱년기는 사람에게서는 늙어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전의 신체적, 정신적 조건과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도 된다. 정책도 갱년기가 있는가. 정책의 갱년기를 개념적인 학자는 지금까지는 없다. 그러나 정책의 갱년기는 처음에 강력하고 활발하게 추진하고 실행했던 정책들이 현재는 시행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시들 시들할 때로 정의해 보고 싶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갱년기인가?

도에 대한 열광은 대단했다. 행정·지방자치학자뿐만 아니라 여타 분야 학자들까지도 제주특별자치도 수립에 참여했다. 제주지방 공무원, 의원, 도민뿐만 아니라 중앙공무원, 학자들까지도 특별자치도 사례를 보려고 외국에 출하게 다녀왔다. 오죽했으면, 당시 제주도에 파견됐던 대사는 외무부에 근무할 때 보다 더 많이 외국에 다니는 것 같다고 할 정도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과제 7개 중에 3번째로 올려 놓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했으니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다.

의 관심도 저만치가 있다. 그렇다고 제주도정, 도의회가 제주자치도 설치 목적 중에 하나인 타 시도를 이끌어 갈 혁신을 생산하고 확산시키면서 중앙 정치권이나 행정에 관심을 받고 있지도 못하다. 6차 권한 이관 작업은 한창이었고 제7차 권한 이관작업을 한다고 하지만 이관되고 제출된 목록은 국무총리가 위원장, 각 부처 장관이 위원인 제주자치도지일위원회 격보다는 한참 낮다. 그러면서도 도내는 행정시장 직선제에서부터 기초자치체 부활, 심지어 읍면의회 설치 등 백가쟁명의 논쟁은 끊임없었다. 이렇게 제주자치도는 도내외에서 추진탄력은 감소되고, 지지 세력은 기운이 쇠하고, 우리끼리는 고참치고 권한은 감싸 안고, 책임은 상대방에게 즉각 던지고 있다. 전형적인 정책갱년기 현상이다.

이제 제주도가 필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해 또 다른 제주자치도 모델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는 일이다. 갱년기 처방은 재충전 밖에 없다. 제주도는 이미 타 도가 경험해 보지 못한 수많은 특별자치도 운영 경험이 있기에 제도약을 위한 신 제주자치도 모델 수립과 운영은 충분히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성공은 신 제주자치도 모델 수립과정에서 지금까지처럼 갱년기의 대표적 증후군인 내 탓, 네 탓만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다.

사설

제2공항 특위로 갈등에 휩싸인 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관련 도의회의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통 끝에 제2공항 특위가 출범한 후에도 절차적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한 제2공항 특위로 인해 도의회가 되레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경학 운영위원장은 지난 2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무책임한 발언 등으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위 위원 구성은 관례상 6명의 상임위원장과 의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던 것을 이번엔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15일 이경용 의원과 18일 안창남 의원이 지적했고, 김장영 의원은 '둘러리가 될 것이 뻔하다'며 특위 위원직을 사퇴했다"고 덧붙였다.

면서 "특위의 역할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중립성 확보가 생명"이라며 특위 제구성 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도의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지극히 감정적인 대립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 위원장의 경우 이미 김태석 의장과 제2공항 특위 '직권상정'을 놓고 한바탕 신경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 김 위원장은 최근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도의회 회의규칙까지 대표발의했습니다. 가족이나 민감한 시기에, 그것도 최대 현안을 놓고 마치 기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습니다. 도의회가 내부의 갈등을 넘어 자중지란에 빠질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이리니 집행부는 정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건의하는 등 도의회 특위를 무력화시키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제발 도의회가 대의기관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열린마당

환경사랑의 지표 '탄소포인트제'



송정훈 서귀포시 안면면사무소

지구 온난화로 인한 위험성은 각종 매스컴을 통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상을 보내면서 매순간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기란 쉽지 않다. 최근 국립기상과학원이 발표한 한반도의 100년 이상의 장기간 기후 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름은 19일 길어지고 겨울은 18일 짧아졌다. 더불어 최근 30년간 강수량은 증가다. 지난여름 폭염과 폭우 그리고 잦은 태풍은 이런 기후변화를 몸소 체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노력이 없다면 앞으로 계절의 길이 변화와 장기간 폭염과 한파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로 전망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우리의 노력이 절실해졌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중인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으로 일상생활 속 노력 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상생활 속 노력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실내 온도 적정하게 유지하기(겨울난방은 20℃ 이하, 여름실내온도 26℃ 이상),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빨래 모아서 하기, 양지할 때 겹을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습관화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려면 홈페이지(www.cpoint.or.kr)를 통해 직접 가입하거나 관할 시 또는 읍면동 주민 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만큼 돈도 벌 수 있는 이로온 정책이 어디 있겠는가.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 만큼 용돈도 챙기는 제테크를 할 수 있길 바란다.

뉴스-in

제주도-강원도 '상생 업무협약' 체결

제주-양양 LCC 취항 인연 ○...국내 일곱번째 LCC인 '플라이 강원'의 취항에 맞춰 지난 22일 제주도도와 강원도도가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지역발전과 우호교류 확대를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 플라이 강원의 양양-제주 노선 첫 취항을 기념해 향후 교류를 확대해나가는 강원도의 제안으로 추진된 협약은 관광을 비롯 농수산물 홍보·판매확대와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발굴, 등 공동분모를 발굴. 앞서 지난 7월에는 제주도·농협제주지역본부와 강원도·농협강원지역본부와 농축산물 판매활성화 및 영농인력 지원교류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 조상윤기자

사.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과의 간담회에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복무규정, 후원금 관리, 운영비 집행, 예산보고 등에 만전을 주문. 고숙희 복지위생국장장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건의 사항을 2020년 상반기 지도·점검 준비 과정 및 평가 항목에 반영하겠다"고 점언. 고대로기자

만장길 첫선, 세계유산 가치 높이는 계기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등을 동시에 보유한 지역은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자연보전 관련 국제지정지역 4가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 자연의 가치를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엇그제는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제주 설치기 유네스코에서 최종 승인했습니다. 센터는 국제보호지역의 질적 관리 향상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와 환경부가 2012년부터 '국제보호지역 관리 허브로서의 제주도'와 '자연환경 분야의 선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목표로 추진한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국제보호지역의 모범적인 관리까지 제주도가 선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자연 보전에 모범적이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틀을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자연이 이처럼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은 우연이 아

닙니다. 한산 부종휴 선생을 비롯 많은 선구자적 업적이 뒷받침이 됐습니다. 부종휴는 73년 전 만장길로 처음 명명한 인물입니다. 당시 김녕국민학교 학생들로 꼬마탐험대를 조직해 만장길 탐사에 나선 일화는 유명합니다. 한라산의 수많은 미기록종을 발견하는 등 식물상 연구의 기틀을 놓았습니다. 지난 21일 부종휴와 꼬마탐험대가 만장길 탐사에 나섰던 길에 조성돼 73년 만에 재현 행사가 열린 것은 그만큼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주식 분야의 선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목표로 추진한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국제보호지역의 모범적인 관리까지 제주도가 선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자연 보전에 모범적이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틀을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자연이 이처럼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은 우연이 아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문재중(前 중등교사)·문재홍(前 애월농협 이사) 아버지 남평문공 장인(前 초등교장·향년 89세)께서 서기 2019년 11월 24일 03시 25분경에 별세 하셨습니다.
일: 2019년 11월 25일(월)
발인일: 2019년 11월 26일(화) 오전 9시
장지: 애월읍 어머리 선영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공공 경춘(향년 83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부인 양봉순, 아들 고광수, 며느리 한원호, 아들 대동, 송현경, 딸 고연희, 사위 이준기, 정희, 한승용, 윤희, 홍선주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밀양박공 동을(향년 9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부인 김연향, 아들 박순철, 며느리 윤광자, 아들 인철, 변순덕, 아들 경철, 김은희, 아들 우철, 김은희, 딸 철, 홍경희, 딸 박순자, 사위 황규삼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설(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해명김씨 해인(향년 67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남편 이재윤, 아들 하신행, 며느리 김영린, 딸 하정호, 사위 송성연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곰팡이)로 열처리 발효시켜 원천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릿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010-3693-2000, 010-2696-9876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